

일본의 학원폭력(이지메)문제와 경찰의 대응

岩橋修 著

(전 경찰청 소년과장 쿠마모토현 경찰본부장)

I. 머리말

'94년 11월말 아이치현 니시오市에서 중학생이 자살하고, 그 후에 발견된 유서에서 장기간에 걸쳐 동급생으로부터 집요하게 당한 학원폭력이 원인이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94년에는 이 사건 이전에도 5건의 학원폭력이 주원인으로 생각되는 청소년의 자살이 발생한 적도 있고, 광범위한 국민의 관심을 모아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중매체에 종종 심각한 문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약 10년전에도 학원폭력에 의한 자살이 빈번히 일어나는 가운데, 동경 나카노구의 중학생이 장례식놀이라고 하는 학원폭력때문에 직접 권총으로 자살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 때도 문부성을 중심으로 정부는 여러가지 긴급대책을 취하고, 또한 그 후에도 학원폭력에 관한 조사연구가 다방면으로 행해져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이해는 진행되고 있다

고 생각된다.

이제 다시 10년전과 같은 상황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10년전에 취한 조치가 불충분했었는지, 혹은 10년전과는 다른 원인이나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경찰은 금후 어떻게 대응해 가야할 것인지의 문제의식을 갖고 기술하고자 한다. 덧붙여 말하면, 의견이 나오는 부분은 私見이라는 것을 밝혀두고자 하는 바이다.

II. 학원폭력 문제에 관한 정부의 대응

1986년에는 통상국회에서의 내각총리대신의 시정 방침 연설에서 학원폭력의 문제가 다루어졌으며, 같은 해 4월의 임시교육심의회의 제2차 답신으로 당면 대응조치로서 문제된 학교의 중점적 교육배치, 교육위원회의 상담기능의 정비, 아동복지, 경찰등과의 연계 등에 관해서 제언을 했다.

1994년 12월13일에는 아이치현의 중학생 자살에 의해 여론이 고조되어 총리관저에서 관계각료회의가 열리고, 문부성을 중심으로 관계성·청이 협력하여 이 문제에 대처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문부대신(문교부장관)은 학교 상담(school counselor)제도에 관한 실천적인 조사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리고, 이 관계각료회의에 앞서서 문부성의 자문회의인 [학원폭력대책 긴급회의]에서 긴급Appeal이 나왔다. 그것은 [학교·가정·사회는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은 행위는 아이들에게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한 인식을 갖도록 하고, 아이들도 그 자각을 가질 것]등 6항목의 Appeal이었다.

또한, 같은 달 27일에는 청소년대책본부의 청소년대책추진회의가 관계성청이 대응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합의를 했다. 여기서는 학교가 타기관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청소년상담체제에 충실을 기하고 청소년들에게 널리 홍보할 것, 민간봉사자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것 등이 합의되었다.

문부성은 이 후의 대응책에 관하여 검토를 계속하고, 특별지도교사가 이 문제를 완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 외에, 아동학생으로부터 학원폭력 상담 등을 받기 위해서 모델이 되는 학교에 상담자를 둘 것을 결정하였다.

이번의 정부의 대응책은 10년 전과 비교하

학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59%가 학원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어, 학원폭력을 당했던 적이 없는 사람은 34.7%밖에 학원폭력을 한 일이 없는 경우와 대조적이다.

여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없지만 악질의 학원폭력에 대한 보다 의연한 방침이나 학교 상담자의 신설등 한 걸음 발전했다고 보여지며, 금후 효과가 주목된다.

Ⅲ. 학원폭력의 발생상황

앙케이트조사 등에 의하면, 학원폭력은 일상적으로 여러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전국통계에서는 학교가 인지하여 문부성에 보고한 건수를 집계한 자료가 존재하고 있다. 1985년에서 1993까지의 추이는 표1과 같으며, 1986년과 1987년에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1988년 이후는 점차로 감소하거나 보합세의 상황이다.

또한, 경찰청통계에서 학원폭력에 기인하는 사건에 관한 집계는 있지만, 이것도 표1과 같이 1988년 이후에는 가장 사건이 많았을 때의 6분의 1정도로 감소되어 왔다. 이 통계를 보면 학원폭력은 10년전과 비교하여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통계는 빙산의 일각이며, 반드시

현실의 동향을 정확하게 통계한 것은 아니다. 다행히 10년전의 많은 양케이트 8조사가 있고, 최근에도 몇개의 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들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1984년에 오오사카시립대의 森田洋司氏등의 그룹이 실시한 조사¹⁾에 의하면, 학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6학년이 53%, 중학교 2학년이 44%에 이르고 있으며, 학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6학년이 62%, 중학교 2학년이 44%로 되어 있다. 가해·피해의 양쪽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27.5%였다.

표1 학원폭력사안의 발생과 처리상황

구분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발생건수	155,066	52,610	35,067	29,786	29,088	24,308	22,062	23,258	21,598		
처리건수	638	281	128	97	98	112	95	105	90	103	76

(주) 발생건수는 문부성통계 자료, 처리건수는 경찰통계 자료

1986년에 삿포로시 시민국 청소년부가 한 조사²⁾에 의하면, 학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경우가 초등학생이 44%, 중학생이 47%, 학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초등학생이 49%, 중학생이 32%였다. 또한, 초등학생이 학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의 56%, 중학생의 63%가 학원폭력 가해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중학생의 생활에 관한 양케이트]³⁾ 결과에 의하면, 학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은 43.4%, 학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36.1%였다. 또한, 학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59%가 학원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어, 학원폭력을 당했던 적이 없는 사람은 34.7%밖에 학원폭력을 한 일이 없는 경우와 대조적이다.

1994년 가을에 법무성 인권 옹호국이 한

1995년(財) 전국 소년 보도원 협회가 國士

1) 저널리스트(No. 836) 29페이지. 조사대상은 도쿄 오오사카의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2학년의 44학급 1,718명. 시기는 1984년 9월말부터 10월말까지의 기간.
 2) 총무청 청소년 대책본부 간행 [청소년 문제 연구 조사 계보] No.18소수. 대상은 삿포로시내의 초등학교 5, 중학교 5, 총 10학교의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1,175명. 시기는 1985년 6월부터 7월까지
 3) 대상은 도쿄, 요코하마 등 10법무국 관내의 중학 1학년~3학년의 13,000명 남짓. 시기는 1994년 9월 초순부터 10월 중순까지.

館大學 니시무라 하루오 교수팀에게 의뢰하여 실시된 [소년의 비행 및 문제행동의 경험과 그 배경요인에 관한 연구]⁴⁾에 의하면, 중고등 학생의 44%가 학원폭력을 한 경험이 있다고 앙케이트에 답하고 있고, 이것은 동조사에서 문제행동으로 언급된 음주(37%), 자택금품 탈취(37%), 태학(34%), 흡연(26%), 절도(23%)등 19종 중에서 최고의 경험율이었다.

이상, 양 시기의 앙케이트 결과에서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며, 도리어 아주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 있고, 학원폭력의 총수는 앙케이트 조사에 나타난 것과, 거의가 변화없이 높은 수준으로 변화되어 온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면, 문부성 통계나 경찰청 통계의 격감은 왜일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교사 등 어른의 시야로는 좀처럼 파악할 수 없는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후술과 같이 경찰청 통계중에서 10년전과 현저한 차가 보이는 것은 학원폭력 장소가 학교내에서 교외로 이동해 간 것과, 학원폭력에 대한 復讐를 야기하는 흉악사건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원폭력을 가하는 쪽이 보다 교묘하게 어른들의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학원폭력 방법도 복수 사건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만 행한다는 실태가 되

어 있을지도 모른다.

IV. 학원폭력에 기인하는 사건등의 처리상황

경찰청에서는 1984년 이후, 학원폭력에 기인하는 사건 등(행위자가 14세 이상은 범죄, 14세 미만은 觸法行爲)을 아래와 같이 처리 상황을 분석하여 공표하고 있다. 앞에서 말하였듯이, 최근 수년 동안은 1984년, 85년 당시의 6분의 1정도로 100건 전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절대수가 부족하다 하겠다. 이 때문에, 여기서는 최근 3년간의 사안을 합산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또한 1985년의 숫자를 참고로 대비시켰다. 또, 학원폭력의 정의는 [단독 또는 복수의 특정인에게 신체에 대한 물리적 공격, 또는 언동에 의한 위협 및 무시 등의 심리적 압박을 계속 반복하여 가함으로써 고통을 주는 것]이라 규정하되 불량 그룹 끼리의 대립항쟁, 처음 대면하는 사람에 대한 공갈 등과, 친구사이의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반복 계속성이 없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원폭력에 대한 복수는 학원폭력에 기인한 것으로 계상되고 있다.

4) 대상은 도쿄도와 토야마현의 공립고등학교 5학교씩 1,2학년 752명 및 도쿄의 6 공립중학교와 도야마의 5공립 중학교의 1~3학년 1,113명으로 총 1,865명. 시기는 1994년 12월부터 7년 2월까지.

1. 범죄 종류별 상황표

표2와 같이, 상해·폭행·폭력행위와 같이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금전에 관계된 공갈이 많다. 1985년과 비교하면 절대수가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범죄

종류에는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공갈의 감소가 눈에 띄고 있다.

한편, 학원폭력의 복수 중 특히 흉악한 살인, 방화도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이것이 잠재화하기 어려운 사안인 것을 생각하면 주목해야 할 것이 아닐까?

표2 학원폭력에 기인한 사건의 범죄 종별 상황

년차	범죄종류													
		계	살인	방화	상해	폭력	폭력 행위	협박	공갈	강요	강간	절도	그외	
92 ~ 95	계	298	2	2	168	41	16	2	46	4	2	8	7	
	복수사건	22	2	2	13	3	2							
1985	계	638	2	2	224	224	66	9	165	14	7	40	13	
	복수사건	49	2	2	24	24	2					8	5	

(주) 한 사안으로 복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요 범죄만을 계상한다.

2. 지도인원의 내역

표3과 같이, 중학생이 8할정도를 차지하고 고등학생이 2할로 되어 있다. 또한, 여자가 4

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최근 3년 동안 형법범으로 보도된 사람의 약 20%가 여자인 것에 비하면, 조금 높다. 또한, 이 상황은 1985년에 비하여 현저한 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표3 학원폭력에 기인하는 사건의 보도 인원

구 분		계		초등학생		중 학생		고등학생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92 ~ 94	인 원	928	264	21	4	726	202	181	58
	구성비	100.0	100.0	2.3	1.5	78.2	76.5	19.5	22.0
	복수사건	61	15	1		33	13	27	2
1985	인 원	1,950	468	85	30	1,539	361	326	77
	구성비	100.0	100.0	4.4	6.4	78.9	77.1	16.7	16.5
	복수사건	157	27	8	2	119	19	30	6

3. 비행 경험

표4와 같이, 가해자중에서 비행경험이 있는 사람은 33%이

다. 소년형법범 전체에서는 비행경험이 있는 사람이 24%이기 때문에, 다른 비행이상으로 비행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

또한, 1985년의 28%와 비교해도 높다.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소위 보통의 아이가

가해소년중에서는 성적이 나쁜쪽이 71%, 피해청소년중에서는 중위 쪽이 71%로, 학업성적에서는 보통의 아이가 학원폭력의 대상이 될 경향이 농후하다.

악질적인 학원폭력을 하는 것에, 약간 제동이 걸리고 있는 현상이라고도 생각된다. 또한, 피해소년에 관해서는 약 1할이 비행경험을 갖고 있으며, 그 상황은 1985년과 큰 차이가 없다.

표4 가해소년과 피해소년의 비행경험 (가해소년)

구 분		계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92 ~ 94	인 원	928	626	161	69	42	8	22
	구성비	100.0	67.5	17.3	7.4	4.5	0.9	2.4
1985	인 원	1,950	1,411	276	109	66	41	49
	구성비	100.0	72.3	14.2	5.5	3.4	2.1	2.5

(피해소년)

구 분		계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92 ~ 94	인 원	1,173	1,041	86	20	15	9	2
	구성비	100.0	88.7	7.3	1.7	1.3	0.8	0.2
1985	인 원	402	362	26	8	2	2	2
	구성비	100.0	90.0	6.5	2.0	0.5	0.5	0.5

4. 학업성적

성적의 상중하의 구분에 관해서는 객관적 척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로, 본인이나 교

사, 보호자로부터 대략적인 평가를 합제한 집계이다.

표5와 같이, 가해소년중에서는 성적이 나쁜 쪽이 71%로 대부분이고, 1985년과 비교하여

보다 상위 group의 비율이 높다. 이에 대해 피해소년중에서는 중위 쪽이 77%로 절반을 차지하고 하위쪽은 17%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향은 1985년과 비교하여 보다 현저하

다. 학업성적에서는 보통의 아이가 악질 학원 폭력의 대상으로 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인정 된다.

표5 학교성적별상황 (가해소년) (피해소년)

구 분		계	상	중	하	구 분		계	상	중	하
92 ~ 94	인 원	928	6	263	659	92 ~ 94	인 원	402	21	311	70
	구성비	100.0	0.6	28.3	71.0		구성비	100.0	5.2	77.4	17.4
1985	인 원	1,950	62	658	1,230	1985	인 원	1,173	54	646	473
	구성비	100.0	3.2	33.7	63.1		구성비	100.0	4.6	55.1	40.3

5. 가해소년 보호자의 태도

가해소년이 보호자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학원폭력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자란 환경 자체가 학원폭력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되고 있다. 표6과 같이, 방

임이 극단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과잉간섭, 과잉보호는 예상외로 낮다. 이것을 보면, 악질 학원폭력을 하는 아이에게는 방임되어 있는 것이 많고, 보호자를 포함한 환경조정을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표6 가해소년 보호자의 태도

구 분		계	방임	거부	과보호	일시적	약애	해당없음
92 ~ 94	인 원	928	427	8	25	30	31	407
	구성비	100.0	46.0	0.9	2.7	3.2	3.3	43.9
1985	인 원	1,950	1,093	12	73	53	56	663
	구성비	100.0	56.1	0.6	3.7	2.7	2.9	34.0

6. 학원폭력의 원인, 동기의 상황

표7과 같이, [화풀이]와 [농담과 조롱]의 항목이 같은 비율이지만, 1985년과 비교하면 [농담과 조롱]의 구성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

다. 놀이와 구별짓기 어려운 학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라고도 생각된다.

표7 학원폭력원인, 동기상황

		화 풀 이					장난, 조롱					이 질 감					기 타	
		소 계	잘 난 척 · 건 방 집	가 문 가 족 등 을 자 랑	학 교 성 적 이 뛰 어 남	친 구 에 게 따 돌 림	기 타	소 계	힘 이 약 함 · 무 저 항	육 체 적 결 합 이 있 음	태 도 · 동 작 이 둔 하 다	울 기 보 타	소 계	전 교 생	어 울 리 려 고 하 지 않 는 다	기 타		
92 ~ 94	건 수	158	71		2	21	64	155	110	6	19	3	17	22	3	16	3	7
	구성비	53.0	23.8		0.7	7.0	21.5	52.0	36.9	2.0	6.4	1.0	5.9	7.4	1.0	5.4	1.0	2.3
1985	건 수	307	153	3	6	50	95	286	212	12	29	11	22	34	9	14	11	55
	구성비	48.1	24.0	0.5	0.9	7.8	14.9	44.8	33.2	1.9	4.5	1.7	3.4	5.3	1.4	2.2	1.7	8.6

- (1) 가해소년이 복수의 경우에는 그 중심적 인물에 대해서 계상한다.
- (2) 복수회답때문에 사건수와 일치하지 않는다.

7. 발생장소

표8과 같이, 사안중에서 주요한 발생장소 한 곳을 집계하면 학교외인 경우가 반수를 넘

고 있다. 1985년에는 약 삼분의 이가 교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교사가 학원폭력을 발견하기 어렵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표8 주요 발생장소

		계	내역					교외
			소계	교실	복도	화장실	기타	
92 ~ 96	인원	276	134	42	26	20	46	142
	구성비	100.0	48.6	15.2	9.4	7.2	16.7	51.4
1985	인원	589	384	84	73	128	99	205
	구성비	100.0	65.2	14.3	12.4	21.7	16.8	34.8

8. 규모별

각 사건의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인원수의 규모를 집계한 것이 표9이다. 가해자측이 [2

~5명]이 가장 많은데 비하여 피해자측은 84%가 [1명]이다. 한사람을 다수가 학대한다는 구도는 1985년부터 명확하고, 그 정도가 최근에는 보다 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9 학원폭력의 규모 (가해자측)

구분		계	1명	2~5명	6~10명	11~15명	16명이상
92 ~ 96	인원	276	83	158	30	5	
	구성비	100.0	30.1	57.2	10.9	1.8	
1985	인원	589	185	294	84	20	6
	구성비	100.0	31.4	49.9	14.3	3.4	10

(피해자측)

구분		계	1명	2~5명	6~10명	11~15명	16명이상
92 ~ 96	인원	276	233	39	4		
	구성비	100.0	84.4	14.1	1.4		
1985	인원	589	431	129	29		
	구성비	100.0	73.2	21.9	4.9		

9. 상담의 상대

여기서 대상으로 하는 학원폭력은 어떠한 경로로든 최종적으로는 경찰에게 알려진 사안

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상담한 비율은 보통보다 높다고 봐야만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꼭 참는] 사람이 표10과 같이

18%나 있다. 1985년에는 그 두 배인 36%가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해자측이 [2~5명]이 가장 많은데 비하여 피해자측은 84%가 [1명]이다. 한사람을 다수가 확대한다는 구도는 1985년부터 명확하고, 그 정도가 최근에는 보다 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6할은 보호자에게, 2할은 교사에게, 1할은 친구에게 상담하고 있다.
이 결과를 봐도 학원폭력 피해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은 보호자이며, 보호자가 자신의 아이의 행동변화를 알아차리고 질문을 유도하는 것이 학원폭력 발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표10 상담의 상대

		보호자에게	교사에게	친구에게	상담기관에	상담않고	기타
		상담	상담	상담	상담	혼자고민	
92 ~ 96	인원	240	85	37	23	72	
	구성비	59.7	21.1	9.2	5.7	17.9	
1985	인원	456	269	143	46	451	11
	구성비	36.2	21.4	11.4	3.7	35.9	0.9

V. 학원폭력 문제에 관한 상담수리상황

경찰의 Young Telephone Corner 등의 상담창구에 쏟아져 온, 학원폭력 문제에 관한 건수는 표11과 같이 85년이 높은 수치로 그 후 대폭 감소한 뒤 88년부터 92까지 1,000건 대로 보합시세이지만, 94년 2,087건으로 급증하고 95년은 상반기에만 1,716건에 달해, 1986년 이래의 최고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95의 상담에 관해서 상담자의 내역, 조치상

황에 관해서는 표 12, 13과 같다.

전체 상담의 83%는 전화에 의한 것이며, 소년이 직접 해 온 상담중 94%가 전화를 통한 것이었다. 또한, 보호자 등으로부터의 상담이 전체 상담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학교별로는 여기서도 중학생이 가장 많지만, 다른 통계에 비하여 초등학생, 고등학생이 많은 것도 눈에 띈다.

조치의 내용에서는 조언지도가 71%로 가장 많고 이어서 학교통보·인계가 16%, 계속 지도를 한다는 것이 6%, 교육위원회로의 통보가 4%, 사건으로서 조치가 3%였다.

집중연구

95년 상반기의 사건조치수 76건중 약 6할이 소년상담을 단서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11 학원폭력상담 수리건수의 추이

구 분	1985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수리건수	5,825	4,161	2,186	1,623	1,550	1,530
구 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상반기	
수리건수	1,129	1,263	1,369	2,087	1,176	

표12 학원폭력상담수리상황(1995년상반기)

구 분	전 상 담 건 수	소년자신												
		소년자신					보 호 자 등	전 화 상 담	소년자신					보 호 자 등
		소 계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불 명			소 계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불 명	
계	1,716	667	230	283	137	17	1,049	1,428	625	225	258	125	17	803

표13 학원폭력상담의 조치상황(1995년 상반기)

구 분	합 계	조 언 지 도	계 속 지 도	학 교 통 보 · 연 계	교 육 위 원 회 통 보	사 건 조 치	상 대 아 이 와 연 결	의 료 기 관 소 개	상 대 아 이 에 게 통 보
계	1,716	1,221	94	274	66	43	5	3	10
구성비	100	72.2	5.5	16.0	3.8	2.5	0.3	0.2	0.6

(주) 각상담에 대한 조치 중, 주요한 것만 계상했다.

VI. 학원폭력 문제에 대한 경찰의 대응

학원폭력 문제에 대하여 경찰은 종전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전술한 관계 각료회의에서 국가공안 위원회 위원장은 [...(전략) ... 경찰에서는 금후, 청소년 상담활동의 충실과 가두지도 활동 등을 통한 학원폭력의 조기발견을 꾀하고 가정, 학교 등과의 긴밀한 연결을 바탕으로, 최악의 사태가 생기기 전에 학원폭력이 해소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폭력의 내용이 범죄에 해당되는 악질인 경우에 관해서는 형사사건으로 하는 등, 사안에 대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략)...]이라고 이것에 대한 방침을 말하였다.

학원폭력 문제에 경찰이 관여하는 것에 관해서는 과잉반응이다, 교육문제에 관한 개입은 삼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경찰이 강권적으로 대응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이 있다. 그러나 10년 전에도 심각한 사태에 빠졌으며, 이번에 또 몇 명의 청소년이 문자 그대로 이 문제의 희생이 된 상황하에서는 모든 관계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충분히 발휘하여 학원폭력 문제에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모든 학원폭력의 발생을 막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발생하는 학원폭력이 악질

화되는 것을 막는 대책이 필요하므로, 경찰이 하고 있는 대책은 지극히 유효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 범죄에 해당되는 학원폭력사안을 비행으로 취급하는 소위 사건화, Young Telephone Corner 등의 청소년 상담활동, 가두지도 등에서의 학원폭력 발견활동, 타기관 등과의 연계, 홍보계발 활동의 순서로, 금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의견을 말해 보고자 한다.

1. 비행 사안으로서의 조치

학원폭력 행위가 범죄 저촉행위가 되는 경우에, 가해 청소년을 경찰이 지도해야 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실제로 경찰에 정보가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청소년 상담으로 사정을 파악한 경우라도, 피해자측이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술한대로, 사건수는 문부성 통계와 비교해 보더라도 지극히 낮은 수준에 있다.

당사자로서는 학원폭력 사안이 진정되는 것에 만족하며, 가해 청소년을 경찰이 비행 사안으로 지도하는 것이 일을 너무 크게 만들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싫어하고 있다. 학원폭력은 학교내에서 등 서로에게 그 이후에도 계속 관계가 지속되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당사자의 기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비행

청소년 지도의 중요성에 관하여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악질적인 학원폭력이 있는 경우, 첫째로 우선되어야만 하는 것은 피해자의 협조이며, 사안의 진정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가해 청소년의 교육이다. 그 학원폭력 행위가 소위 따돌림이나 욕 정도로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양쪽 당사자의 보호자나 교사가 중심이 되어, 가해자에 대한 교육내용을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따라서 그 교육은 정해진 형태가 아니며, 아무런 수속도 필요없는, 그 청소년이나 주위의 사정에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 학원폭력 행위가 폭행, 상해, 공갈이라는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행 청소년으로 다루어져서는 안된다. 즉, 약간 형식론적으로 말하면, 법에서는 경찰이 비행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 14세 이상은 가정법원 또는 검찰청에 반드시 송치해야만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⁵⁾, 14세 미만에 대하여는 보호자에게 감호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 상담소에 통고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⁶⁾

비행 청소년의 교육에 관하여 반드시 일정한 공적기관이 관여하여 해당 청소년에게 최

적의 교육내용을 정하고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당사자나 교사만으로 비행사실을 규명하는 것은 곤란하며, 애매한 사실을 기초로 선후책을 강구해도 양쪽 당사자에게 불만이 남은 채로 끝나게 될 것이다. 또한, 가해 청소년은 원래 죄의식이 없고, 자신의 행위의 중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대부분 인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여러 가지 조사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가해 청소년의 장래에 화근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도,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사실규명을 엄격히 하여 경찰, 가정법원, 검찰청 등에 관여되는 과정중에 충분히 자기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인식시켜,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어떤 처분을 결정하는 것도, 심판을 개시하는 것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거기에 다다르기까지의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사안처리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향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칫하면, 성인을 죄로 몰아서 형무소에 보내는 것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청소년 사건처리의 취지에 관한 올바른 이해 위에, 그 의사결정을 촉구 할 필요가 있다.

5) 청소년법 제6조, 제4조, 형소법 246조의 취지에서, 이와 같이 해석되어 있다.

6) 아동복지법 제25조

2. 청소년 상담활동

경찰에는 94년에 약 8만 6,000건의 상담이 쏟아져 왔지만, 학원폭력에 관한 상담은 전술한

바와 같이, 약 2,087건으로 상당히 적다. 95년 상반기에 급증했다고 해도 1,716건이다. 이런 원인중의 하나로는 경찰에 상담을 해서 사건화가 되면 즉시 검거가 된다고 하는 것으로, 반대로 말하면 사건화 되지 않는 것은 아예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⁷⁾ 비행 사안으로 처리하는 소위 사건화는 해당 사안이 악질이기 때문에 보도가 되고 눈에 띄게 되며 게다가, 사실상 경찰의 독점 분야이므로 그와 같은 인상이 강한 것이다. 그러나 기술한 대로 수적으로는 오히려 아주 적어서, 그 밖의 미미한 활동이 중심이 되어 있는 현재의 상태에 대하여 많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95년 상반기에는 94년 말부터 관심이 높아져서 경찰의 상담창구에 관한 보도나 그 밖의 홍보에 따라 건수가 급증하였지만, 금후도 계

가해 청소년의 장래에 화근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도,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사실구명을 엄격히 하여 경찰, 가정법원, 검찰청 등에 관여되는 과정중에 충분히 자기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인식시켜,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속적으로 홍보의 방법을 연구해 가야만 한다. 청소년 대상의 새로운 홍보 시도로서 청소년 만화잡지에 대한 정부의 공고가 현재 실시되고 있지만 보호자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도 바라는 바이다.

학원폭력에 관한 상담의 처리상황에 관해서는 이미 기술한 바와 같지만, 이것의 본연의 자세에 관하여 한 두가지 언급해 두고자 한다. 상담의 대부분은 전화에 의한 것이며 1회의 상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러나 확실히 경미한 것은 그것만으로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상담을 받아, 섬세하고 치밀한 조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전화를 편하게 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만 한다. 또한, 보다 복잡 곤란한 경우에 관해서는 보호자와 청소년을 동시에 불러서 상담에

7) (재)사회안전연구재단의 조성에 의해, 청소년학대 등 문제연구회(대표=중앙대학·藤本哲也教授)가 한 조사에 따르면, 학대문제를 경찰에 상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은 청소년의 88%, 보호자의 73%, 교사의 83%를 차지하였다. 상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묻은 바(복수회답), 청소년의 64%가 [일이 소란스러워진다], 23%가 [경찰을 귀찮게 하면 안된다]라고 대답하였다. 같은 질문에 대하여 보호자의 50%가 [학교, 가정에서만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 30%가 [일이 소란스러워진다], 19%가 [경찰은 사건검거에만 치중하고, 상담에는 응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라고 대답하였으며, 교사의 53%가 [학교, 가정에서만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 22%가 [경찰은 개입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본조사의 대상은 전국 도도부현의 초등학교, 중학생 1,014명, 그 보호자 1,022명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교사 412명으로, 기간은 1994년 10월에서 11월이다.

응하도록 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을 해야 된다.

학원폭력 상담의 2할 정도는 학교나 교육 위원회에 연락하고 있지만, 연락하는 정도로 끝나면 안된다. 연락한 후의 상황을, 상담자나 학교에서 청취하는 등의 과정은 물론, 사안의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학교와 부모 자식과의 대화의 장애, 제3자로서 출석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적극적이고 또한 다각도로 대응을 하려면, 상담전문직원이나 Counselling 기술을 습득한 부인 지도원 등 체제의 충실을 꾀할 필요가 있다. 학원폭력이 일과성의 문제가 아닌 것이 분명한 오늘날, 상담활동의 충실 강화책의 실현이 급선무이다.

3. 가두 지도시의 학원폭력 발견 활동

가두지도활동은 지역경찰관, 부인지도원, 그리고 민간 청소년지도위원 등에 의해서 활발히 행해지고 있지만, 怠學이나 徘徊의 그늘에 가려져 학원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불량그룹속에 심각한 학원폭력을 받고 있는 청소년이 섞여 있지는 않는지, 라는 관점에서 청소년을 관찰하여 학원폭력을 발견하

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청소년사건을 처리할 때에도, 그 사안의 주변에 악질적인 학원폭력이 숨어 있지는 않는가, 라는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4. 타 기관 등과의 연계

학원폭력 문제의 해결을 꾀함에 있어서, 학교와의 연계에 관해서는 기술한 바와 같지만, 학원폭력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민간봉사단체, 정신과협회, 변호사회 등의 민간단체와의 연계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경찰의 태도에 대한 선입관은 강하며, 검거제일주의 또는 강권적인 대응을 한다는 사고방식이 뿌리깊게 박혀 있는 것 같다.⁸⁾

향후, 이러한 오해를 풀면서 서로 보완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학원폭력 해결을 꾀하여 가는 것이 필요하다.

5. 홍보계발활동

청소년이나 교사에 대한 홍보활동도 방식에 따라서 나름대로 유효하겠지만, 당면한 가장

8) 일본변호사연합회 편저 [학대 문제핸드북] 78페이지, [경찰청은 지역에서의 비행대책·청소년 건전육성활동의 조직자로서, [학대]문제에 관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려고 하고 있지만, 원래, 범죄 수사나 범죄의 진압, 예방, 증거의 수집, 사법수속의 개시 등을 임무로 하는 경찰입장에서는 교육이나 복지에 관해서는 서투른 아마추어이다. 이러한 경찰이 [학대]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여떨지는 사실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 경찰활동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체질이 개선되어야지만, [학대]의 종합적인 해결을 꾀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인 방법은 보호자에 대한 대응일 것이다. 청소년은 스스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 교사는 학원폭력을 당하는 기미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보호자

가 자기 아이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학원폭력을 발견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원폭력 발견의 방법이나 발견후의 대처방법을 교시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VII. 맺음말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서도 여러건의 학원폭력에 의한 청소년의 자살이 일어나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학원폭력을 당하고 있는 소년이 학원폭력을 가한 손아래 소녀에게 권총을 발포하여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도, 학원폭력을 가하

**학원폭력이 일과성의 문제가
아닌 것이 분명한 오늘날, 상담활동의 충실
강화책의 실현이 급선무이다.**

는 아이에게 건네 줄 돈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걱정하여 중학생이 자살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해외의 상황을 듣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10년전부터 계속해서 최근의 학원폭력에 의한 자살 속발이라는 사태에 당면하여, 학원폭력문제가 실로 사회에 뿌리깊게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들은 이번이야말로, 학원폭력 문제는 일과성이 아니라, 이에 관여하는 어른이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할 심각한 청소년 병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직시해야만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찰은 어린아이들 사회에서 이미 소실되어 버린 중재자로 탈바꿈하여 간악한 학원폭력행위의 저지에 철저를 기해야만 할 것이다.